

현대 한국에서 시도된 초기불교의 재구성: ‘갈라파고스 증후군’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

이영진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tatpum@knu.ac.kr

I. 들어가며

III. 나가며

II. ‘갈라파고스 증후군’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

요약문

한국에서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기불교 연구의 주된 경향은 특히 1990년대 이후 국제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폐쇄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인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연상하게 한다. 이 폐쇄적인 경향의 근저에는 특정한 전통이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주장한 바에 대한 순진한 믿음이 깔려있다. 예를 들면, “‘빨리’(Pali)는 붓다가 사용했던 언어인 마가다어(Māgādhī)이고, ‘니까야’(Nikāya)는 역사적 붓다 혹은 그 제자들의 육성 혹은 원음(原音)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위빠사나’(Vipassanā)는 붓다가 깨달음을 실현한 방법이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결여한 순진한 믿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C2A02093108)

음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대상으로 종교적으로 바람직한 혹은 특정한 전통의 주장에 순응하는 해답을 구하는 경향이 바로 한국 초기불교 연구의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 한국에서 시도된 초기불교연구를 ‘갈라파고스 증후군’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두 축으로 재구성해보았다. 이 작업은 국내와 해외에서 일어난 초기불교연구의 주요 사건을 시대적으로 정리하는 ‘연대표’를 염두에 두고 기술함으로써, 특정한 전통이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없이 진행되었던 국내 초기불교 연구가 세계학계의 담론과 흐름으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었던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소수의 학자들이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세계학계의 담론에 근거를 두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는지도 다루었다.

주제어

초기불교, 갈라파고스 증후군, 사미 논쟁, 대승/아함 비불설 논쟁, 빨리 문헌, 위빠사나, 남방상좌부(테라와다)

I. 들어가며

빨리(Pāli)로 쓰인 니까야(Nikāya)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은 한국불교의 주류를 이루어온 불친절한 ‘선(禪)불교’ 전통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족과 ‘붓다의 본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자는 원형 혹은 순수성에 대한 강력한 종교적 욕구가 만나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종교적 맥락에 기반한 ‘초기불교’는 현재 한국불교의 주류세력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문분야에서는 4부 니까야 전체와 비나야(Vinaya), 그리고 주석서들의 일부가 개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한글로 번역되었다.¹⁾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번역물을 이용하여 ‘초기불교’를 연구하고 이에 관한 저작을 출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쉽게 접근이 가능해져 ‘대중화’에 성공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초기불교’의 수행으로 간주

1) 이에 관해서는 박대용 2017, 33의 표를 참조.

되는, 주로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빠사나’(vipassanā)와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명상은 실생활로 파고들고 있으며, 심리학, 생리학 등과 학제 간 융합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2000년대 이후는 가치 초기불교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²⁾

그렇지만 한국의 ‘초기불교’ 연구는 그 경향성이 원형 혹은 순수성을 추구하는 종교적 맥락에서 기인한 바인지, 종교적으로 순진한 믿음이 전제가 되고 방법론이 되는 기이한 현상으로 정착되었다. 예를 들면, “‘빨리’는 붓다가 사용했던 언어(마가다어 Māgādhī)이고, ‘니까야’는 역사적 붓다 혹은 그 제자들의 육성 혹은 원음(原音)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위빠사나’는 붓다가 깨달음을 실현한 방법이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라는 특정 전통의 주장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대상으로 종교적으로 바람직한 혹은 특정 전통의 주장에 순응하는 해답을 구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세계에서 초기불교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경향은 빨리 뿐 아니라 산스크리트, 티베트어, 간다리, 고전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쓰인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불교문헌을 역사적 발전으로 재구성하여 이해하는 비판적 방법론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접근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전통의 주장에 대해 그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러한 주장의 맥락을 조사함으로써 종교의 권위가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 가치중립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정착한 ‘초기불교’ 연구경향은 마치 기술이나 서비스 등이 국제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자신들의 형식만을 고수하려는 폐쇄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인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연상하게 한다.

본 논문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초기불교 혹은 그 문헌을 바라보는 학자들

2) 법보신문의 2011년 3월에 실린 이재형 기자의 ‘초기불교 연구 전성시대 열렸다’ 참조(<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47>; 검색일자: 2020.11.01.).

의 관점과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행해진 초기불교 연구를 ‘갈라파고스 증후군’과 ‘갈라파고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노력’의 두 축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II. ‘갈라파고스 증후군’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

본 장은 ‘위빠사나’를 비롯한 남방 상좌부 혹은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전의 선구자 그룹,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띠(sati)’를 둘러싼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 ‘법보신문’의 지면에서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걸쳐 진행된 ‘대승/아함 비불설 논쟁’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저작과 논쟁을 대상으로 이들의 초기불교(문헌)에 대한 관점과 연구 방법론을 살펴볼 것이다.

1. 초기불교 연구 선구자들(~1990년)

초기불교 연구의 대표적 선구자들로는 고익진, 이종표, 범경 스님, 호진 스님을 뽑을 수 있다.³⁾ 이들 중 전자의 둘은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자생적으로 초기불교 연구를 시작한 학자이다. 후자의 둘은 라모뜨(Étienne Lamotte)로 대표되는, 문헌학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어권 불교학 전통에서 초기불교 연구를 익힌 학자이다.

1.1 고익진

한국에서 초기불교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초기불교가 자체적

3) 이 이외에도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할 때 1990년대 이전에 연도순으로 백성옥, 김남수, 지관 스님, 철인스님, 윤세원, 조용길, 프란시스코 수니가 또한 이 분야의 선행업적을 남겼다(이재형 2011).

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각인시킨 것은 ‘고익진’이라는 선구자였다는 점은 학계에서 어느 정도 동의된 것 같다.⁴⁾ 1970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청구한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는 초기불교에 대한 그의 유일한 연구이지만, 이 한편의 논문은 한국 불교학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⁵⁾

고익진은 1970년에 이미 기무라 다이켄(木村 泰賢)과 미즈노 고겐(水野弘元)의 저서를 통해 서구와 그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 축적된 초기불교 경전에 대한 당시 문헌학적 성과를 알고 있었다.⁶⁾ 그는 초기경전 중 아함보다 빨리 니까야를 시기적으로 일찍 성립한, 원전성(原典性)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⁷⁾ 그렇지만 아함 뿐 아니라 시대적으로 앞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한 니까야 모두 그대로 역사적 변용을 거쳤다는 연구 성과도 인정하고 있다.⁸⁾

고익진의 방법론은 그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①법상(法相)에 의거함과 ②경전으로 증명(經證)이다.⁹⁾ 매우 흥미로운 것은 ①‘법상’의 적용이다. 고익진은 부처님의 경설이 수승한 것에 따라 설하는 것[殊勝說]도 있고 숨은 뜻에 따라 설명하는 것[密意說]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뜻이 명확하게 밝혀진 ‘요의설’(nītārtha)이 아니라는 『구사론』, 정확하게는 경량부의 논쟁상대가 주장한 바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이러한 밀의설과 요의설이 아니라 『구사론』이 ‘법상’이라고 부르는, 그에 따르면, 아함교설의 ‘진정한 뜻’ 혹은 ‘법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¹⁰⁾

본론을 통해 보면, 고익진은 각각의 다르마와 그 분류 체계를 정의하고, 아

4) 이종표 2014, 37, 67; 황순일 2014, 15.

5) 본 논문은 고익진의 사후 1991년에 출간된 초판이 아니라, 2018년에 출판된 증보판을 이용하였다. 다만 인용 시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편의를 위하여 한글과 병기된 한문을 생략하였다.

6) 이에 관해서는 고익진 2018, 39 참조.

7) 앞의 책, 41-42.

8) 앞의 책, 37.

9) 앞의 책, 35-37.

10) 앞의 책, 36-37; 고익진(2018, 35)이 인용한 현장역 『구사론』(그리고 진제역)의 ‘법상’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는 ‘lākṣaṇika’이고, 해당하는 티벳역은 ‘mtshan nyid pa’이다. ‘ābhiprāyika’(숨은 의도 혹은 속뜻이 있는)와 상반되어 쓰이는 ‘lākṣaṇika’는 ‘lakṣaṇa’(정의)로부터 나온 단어로 ‘정의(定義)에 중점을 두는, 한정적인 즉 분명한’ 정도의 의미이다.

함교설의 ‘진정한 뜻’을 밝히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증표에 따르면, 고익진이 해석한 아함의 체계는 “十八界라는 진여법계를 因緣으로 六六法이라는 유위세간이 발생하고, 六界라는 진여법계에 미혹하여 五蘊이라는 유위세간이 集하고, 明이라는 眞如實相에 미혹하여 十二緣起라는 유위세간이 緣起하는 치밀한 형이상학체계이다.”¹¹⁾

‘중국불교’라는 프리즘(prism)을 거친 ‘대승불교’의 이해를 연상케 하는¹²⁾ 이러한 독특한 철학체계는 “아함이 대승불교와 그 정신과 이론에서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대승의 기초는 아함이고 아함을 완성하고 있는 것은 대승이”¹³⁾라고 파악하고 있는 그의 불교관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1.2 이증표

이증표는 1990년 「아함의 중도체계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 동일한 제목의 책을 출판한다.¹⁴⁾ 그의 방법론적 특징은 서양철학에 입각하여 초기불교 경전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불교의 철학적 이해는 “불교가 과거의 고루한 사상으로 소외되지 않고, 현대 속에서 현대철학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사상으로 되살아나, 현대인을 구원하는 현대사상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¹⁵⁾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붓다의 철학을 ‘중도’라고 명명하여 중심에 두고,¹⁶⁾ 9차제정을 인식론에, 십이지

11) 이증표 2014, 66-67.

12) 고익진의 불교이해가 실체론적이며 아함교설을 실체론에 입각하여 해석하였다고 비판한 이증표의 평가에 관해서는 앞의 논문, 특히 62-67 참조.

13) 고익진 2018, 22.

14) 필자가 택한 이증표의 저서는 1991년이 아니라 2018년에 증보된 책이다. 머리말(이증표 2018, 7)에서 1991년의 저서에 비해 내용에 큰 변화가 없고 원전 특히 니까야의 많은 부분을 보충했다고 언급한다.

15) 이증표 2018, 13.

16)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초기경전에서 ‘중도’가 ‘팔정도’로도 기술되고 ‘십이지 연기’로도 기술되는 불일치성을 보여주는데, 이증표는 전자를 ‘실천체계로서의 중도’로 후자를 ‘철학 체계 혹은 이론적 중도’로 나누어 이해함을 통해 불일치성을 해소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의 책, 23과 97 참조.

연기·오온·십이처·십팔계 등을 존재론에, 사성제를 가치론에 배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중표의 불교관은 초기불교 경전이 대승불교의 이해와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고익진의 그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¹⁷⁾ 그렇지만 한역 『구사론』의 ‘법상’을 변용(變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 고익진과 달리, 이중표는 초기불교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대승불교와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인지, 아비달마를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¹⁸⁾

한국이라는 척박한 토양에서 분투하면서 초기불교 연구의 맹아(萌芽)를 틈을 그들의 연구는 안타깝지만 100년 이상의 연구 성과가 축적된 세계학계와는 상당한 거리가 벌어져 있었다. 예를 들면 이중표가 그의 연구를 발표하기 직전인 1980년 말, 당시 세계학계에서는 ‘니까야’라는 초기불교문헌을 대상으로 그 문헌관과 방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흐름이 본격화되었다.

1987년 라이덴에서 열린 7차 세계 산스크리트 학회에서는 붓다 자신의 교설이라고 전승된, 4부 니까야와 『숫타니파타』 등의 계승모음집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본질에 있어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충실히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¹⁹⁾ 이 논의는 1981년 슈미트하우젠이 발표한 논문으로부터 촉발하였다.²⁰⁾ 이 논문에서 그는 ‘해탈적 통찰’(Liberating Insight)을 제사정려에서 사제의 방식으로 루(漏)에 대해 관찰하는 ‘붓다의 정각’, 존재를 무상·고·무아의 방식으

17) 앞서서 언급했지만, 이중표는 고익진의 불교이해가 실체론적이며 아함교설을 실체론에 입각하여 해석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현재가 아닌, 1990년대 당시의 이중표의 인식은 예를 들면, 이중표(2018, 457)의 마지막 두 단락에서 ‘진아’(眞我)를 ‘아트만’으로 ‘제법실상’을 ‘법계’ 혹은 ‘열반’으로 바꾸면 고익진의 ‘무아=공=제법실상=반야=아트만’과 변별하기 힘들다.

18) 앞의 책, 12: “역사적으로도 대승불교의 발흥은 초기경전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비달마불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승불교운동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아비달마불교에 의해 왜곡된 불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대승(大乘)의 경론(經論)은 붓다의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재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도 초기경전은 그 기초가 된다.

19) 이에 관해서는 Schmithausen 1990 참조.

20) Schmithausen 1981.

로 관찰하는 ‘부정적-지적’ 흐름, 구차제정(九次第定)의 마지막 단계인 상수멸(想受滅)로 대변되는 ‘긍정적-신비적’ 흐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부정적-지적 흐름을 우위에 두고 긍정적-신비적 흐름을 통합해 나갔는가를 치밀하게 분석하였다.²¹⁾

1987년의 답론은 니까야를 다양한 시대적 층(層)으로 나누어 역사적 발전으로 재구성한 슈미트하우젠의 작업에 대하여 고프리치(Richard Gombrich)와 노만(K.R. Norman)의 비판과 슈미트하우젠과 입장을 함께하는 웨터(Tilmann Vetter)와 아라마키 노리토시(荒牧俊典)가 대응한 토론이었다. 이 답론을 통해서 슈미트하우젠은 초기불교를 바라보는 세 가지 입장과 방법론을 분류하였다.²²⁾

첫 번째 부류는 대부분 영국학자로서 그들은 비록 니까야에는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이 동질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말로 명확한 한 단락을 통해서도 불일치성을 정전(正典)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부류는 최초기 불교의 사상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쇼펜(Gregory Schopen)으로 대표되는 학자들이다. 그들은 초기불교 문헌이 기원전 1세기 이전에는 성문화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후로도 어느 정도 개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서로 다른 부파들의 문헌을 비교함으로써 부파분열 이전의 공통된 사상을 재구성하는 방법론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는 비문(碑文) 등의 다른 자료를 통해 초기불교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모으려고 한다.

세 번째 부류는 슈미트하우젠, 웨터, 아라마키 노리토시로 대변되는, 성서비평학의 방법론인 고등비평(higher criticism)을 불교 텍스트에 적용하는 학자들이다. 이들은 후대의 첨가, 서로 다른 층(層)들, 이질적인 요소들을 분리하고 이를 역사적 발전단계로 재구성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이 방법론은 부가적인 기준의 적용 없이는 어떠한 층을 특정한 연대나 붓다에게 안전

21) 이영진 2005, 95.

22) 이하의 세 부류에 관해서는 Schmithausen 1990, 1-2 참조.

하게 귀속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단점도 있다.

또 다른 당시 세계 초기불교의 흐름은 영국을 중심으로 1870년대부터 시작된 빨리 문헌 중심의 초기불교 연구가 산스크리트 텍스트 연구로 지평을 넓혀 갔다는 것이다. 1890~1910년대에 중앙아시아 동투르크스탄에서는 2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 필사된, (근본)설일체유부 소속의 불교 사본이 포함된 산스크리트 필사본들이 파편의 형태로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1965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전에 이미 6권이 발표되었다.²³⁾ 이를 통해 초기불교 연구에는 산스크리트 그리고 대응하는 한역과 빨리본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흐름이 정착되어 갔다.

1.3 법경 스님과 호진 스님

호진 스님과 법경 스님은 당시 세계 불교학의 주류 중 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던 프랑스어권의 선행연구와 방법론을 습득하고, 그들의 문헌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기존연구를 계승함과 동시에 수정 발전시키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하는 1989년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들을 통해 이 두 학자의 초기불교 문헌관과 연구방법론을 살펴보겠다.

우선 두 스님의 방법론은 산스크리트, 빨리, 티벳어, 한역 등 다양한 언어로 쓰인 문헌들을 세밀히 분석하고 비교 검토하여, 텍스트들 사이에, 또한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정보들 사이에 층(層)을 나누는 작업을 우선시한다.²⁴⁾ 1989년 발표된 두 논문에서 법경 스님은 『상웃파니까야』의 ‘Sattavassāni-Dhītarō’와 두 버전의 한역 『마녀경』 즉, 『잡아함경』의 1092번째 경전과 『별역잡아함』의 31번째 경전을 비교하고, 호진 스님은 『밀린다파랑하』(Milindapañhā)를 한역 『나선비구경』 2권본과 3권본의 두 버전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학자 모두는 해당 텍스트들의 한역본이 빨리본보다 시대적으로 선행하는 형태를

23) Sanskrithandschriften aus den Turfan-Funden(투르판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 사본) 시리즈로서 현재 2012년에 발행된 11권까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4) 서성원 1989, 39; 윤병식 1989, 88-89.

갖춘 원형에 가깝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²⁵⁾

법경 스님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존하는 빨리 텍스트를 원초적인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학자들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론의 원칙을 제안한다.

우리가 여기서 Māra經群을 취급하면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 빠알리經을 우위에 두고 그것에 맞추어 다른 원시경전(산스크리트 및 漢譯本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각이 지양되어, 서로 대등한 가치기준에서 각 학파에 속한 텍스트의 분석비판 및 비교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²⁶⁾

호진 스님은 방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면서, 『밀린다광하』가 나가세나라는 한 명의 비구와 인도 서북지역을 통치했던 그리스계의 메난드로스 왕과의 실제로 행해졌던 불교교리에 대한 토론이라는 기존의 학설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선비구‘경’(經)이라고 번역되기에 중국에서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소부(小部)에 포함되어 경전의 권위를 인정받은 텍스트에 대해 당시에 그리고 현재에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나선비구경의 저작자가 그 당시 교단내외에 제기되고 있었던, 또는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교리상의 여러 가지 난문제들을 한곳에 망라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교리서를, 문답형식을 취해 만들면서, 나가세나(Nāgasena)라는 허구적인 비구를 내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할 사람으로 정한 것이 역사상 실재인물로서 위대했던 메난드로스(Menandros)의 이름을 빌린 밀린다(Milinda)가 아니었을까. 이것은 이 교리문답서에

25) 법경 스님에 따르면, ‘Sattavassāni-Dhīṭaro’는 여러 차례의 수정과 철저한 재정비를 거친 결과로 볼 수 있으며(서성원 1989, 42), 사실을 이미지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역에는 없는 비유를 후대에 부가하였다(서성원 1989, 52). 호진 스님에 따르면, 빨리본 『밀린다광하』는 내용이 간결 소박한 한역과 공통되는 부분 외에 대단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주제들로 이루어진 부분을 증광(增廣)하여 부가하였다(윤병식 1989, 86).

26) 서성원 1989, 42-43.

보다 큰 비중과 효과를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²⁷⁾

2. 2000년대의 논쟁들: ‘사띠’ 논쟁과 ‘대승/아함 비불설 논쟁’

1990년대에 들어서서 미얀마 등의 남방상좌부 혹은 테라와다 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빠사나는 역사적인 붓다가 깨달았던 방법이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채, 비교적 체험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장점아래 불교계에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했다.²⁸⁾ 이와 더불어 남방상좌부의 불교는 초기불교를 변화 혹은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유지해왔으며, 빨리 니까야는 붓다의 원음(原音)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²⁹⁾

2000년대에는 이러한 분위기 아래 전재성, 각목 스님, 대림 스님이 빨리 니까야를 번역하여 출판하는 등 초기불교의 학문적 활동도 왕성해졌다. 황순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초기불교는 위빠사나 명상법을 중심으로 수행과 교학을 동일한 비중에서 다루는 한국적 불교학의 독특한 모습”³⁰⁾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000년대에는 한국 초기불교학에 있어서 중대한 두 가지 논쟁이 일어난다. 하나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준호, 임승택, 김재성이 참여한 ‘사띠(sati)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2009년 마성스님, 권오민, 전재성, 황순일이 참여한 ‘대승/아함 비불설 논쟁’이다.

그렇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세계학계의 흐름은 어떠할까?

우선, 1994년 스킬링(Skilling 1994)은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깡규르’(bka’ ’gyur)에 흠어져 있던 초기불교 경전들을 모아서 편집하고 이를 해당하는 산스크리트, 빨리 버전과 비교한 작업을 출판하였다.

동일한 1994년에는 영국 도서관이 아프가니스탄의 핫다(Haḍḍa)에서 발견되었다고 추정되는, 자작나무껍질에 간다리(Gāndhārī)³¹⁾를 카로슈티(kharoṣṭhī)

27) 윤병식 1989, 113.

28) 김준호 2008b, 189.

29) 황순일 2014, 20.

30) 앞의 논문, 20.

31) ‘간다라어’를 지칭하는 ‘간다리’는 베일리(Harold Walter Bailey)가 1941년 만든 조이로서,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프라크리트(Prakrit), 정확하게는 ‘중세 인도-아리아어’(Middle Indo-Aryan)이다.

문자로 필사한 법장부(法藏部) 소속의 불교사본 두루마리 29개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2010년까지 다수의 주류불교와 소수(현재까지 7종)의 대승불교 간다리/카로슈티 필사본 파편과 두루마리들이 보고되었다.³²⁾ 기원전 2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³³⁾ 불교문헌인 이들은 초기불교의 자료를 ‘빨리’라는 프라크리트 이외에도 ‘간다리’로 확장하였다.

바미안(Bamiyan)에서는 2세기에서 4세기 초에 걸쳐있는 간다리/카로슈티 사본이외에도, 3세기부터 8세기까지에 필사된, 불교혼성 산스크리트(Buddhist Hybrid Sanskrit)/브리흐미(Brāhmī) 문자 사본들이 발견된다. 이들은 아함, 대승경전, 율, 아비달마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데, 이 또한 경·율·아비달마·대승경전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³⁴⁾

1990년대 후반에는 영국 런던의 한 고서적상에서 길기트(Gilgit)에서 발견되었다고 추정되는 (근본)설일체유부의 『장아함경』 산스크리트 사본이 입수되었다. 8세기 후반에 필사된 이 사본은 대부분 작은 파편으로 이루어진 간다리/카로슈티 사본과 달리, 비록 파편의 형태이지만 꽤 많은 양, 즉 총 454 폴리오(polio) 중 320폴리오(2012년의 정보)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³⁵⁾

이러한 1990년대에 시작된 간다리/카로슈티 사본과 『장아함경』 산스크리트 사본의 발굴과 연구는 대부분 17세기 이후에 필사된 빨리 삼장이 “현존하는 경전 중 고층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누려왔던 독점적인 지위를 서서히 무너”³⁶⁾뜨렸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동일한 제명의 경전이라 할지라도 각 지역의 부파마다 구조, 내용 및 문구에서 차이가 나며, 상응하는 『장아함』 한역·산스크리트와 『디가니까야』라 할지라도 각각 경전의 숫자와 그 배치에서

32)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영진 2014, 335-343.

33) 간다리 사본의 필사 시기는 두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층은 주로 1세기~2세기에 걸쳐있고, 신층(바미안 간다리 사본)은 2세기~4세기에 걸쳐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Schlosser 2013, 11-12 참조.

34) 바미안에서 발견된 사본의 개요에 관해서는 Braavig and Liland 2010 참조.

35) Choi 2012, 11-13.

36) 황순일 2014, 24-25.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난다는 점은³⁷⁾ 각 지역의 부파마다 불교문헌을 독자적으로 편찬(編纂), 창작(創作)하였을 가능성을 시사(示唆)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두 일본 학자의 중요한 연구가 발표되는데, 이 연구는 기존에 우리가 종래 알고 있었던, 초기/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관계에 대한 상식을 깨뜨리는 역할을 했다. 그 중 첫 번째는 1998년 발표된 후지타 요시미치(藤田祥道)의 불설(佛說) 정의의 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³⁸⁾ 후지타에 따르면, 본래 ‘불설’ 판단의 기준이었던 법(dharma)과 율(vinaya)에 ‘역사적 붓다가 가르친 법의 본질’인 ‘법성’(dharmat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불설이라는 기준을 부가한 것은 “부파불교에서 불설로서의 논쟁 제작과 대승불교에서 대승경전 제작을 정당화”하였고, ‘법성’은 아함이라는 초기불교 경전 창작에 근본정신으로서 작용한다.³⁹⁾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반의 사사키 시즈카(佐々木閑)의 파승(破僧) 개념 변천에 관한 연구이다.⁴⁰⁾ 그에 따르면, 아쇼카 왕 시대에 발생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파승의 정의가 ‘석가모니에 배반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가 한 패를 모집하고 별개의 승단을 만드는’ 파법륜승(cakrabhedha)에서 ‘같은 승단 안에서 구성원이 2파로 나뉘고 별개 행사를 집행하는’ 파갈마승(karmabheda)로 변화하였다. 이는 포살이나 갈마 등의 승가의 행사를 함께 하는 한, 서로 상반된 학설을 주장하더라도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共住]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파승 정의의 전환을 계기로 불교교단에서는 ‘불설’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교의의 다양화를 용인하는 현상이 생겨났으며 이로부터 부파불교가 성립하게 되었다.⁴¹⁾ 사사키 시즈카는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를 동일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 두 가지 현상으로 보고, 대승불교 또한 파승 정의의 전환을 계기로 발생한 불교교리의 다양성을 용인하는 태도로부

37) Choi 2012, 18-19.

38) 후지타 요시미치 2019.

39) 앞의 논문, 256-257.

40) 사사키 시즈카 2007.

41) 이자량 2002, 316.

터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⁴²⁾

남방상좌부 혹은 테라와다의 위상 역시 2008년 제 15회 세계불교학회(IABS)의 패널 발표(How “Theravāda” is Theravāda?) 이후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였다. 이 패널의 결과물은 2012년에 출판되었는데, 이를 통해 ‘테라와다’라는 용어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스리랑카 등의 현재 불교교단에 상응하는 부파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으며,⁴³⁾ 이 용어가 고대의 단일한 불교의 부파를 지칭한다는 현대의 관념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이 밝혀졌다.⁴⁴⁾

2.1 사띠(sati) 논쟁

2001년부터 200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불교수행론에서 ‘위빠사나’와 항상 그 쌍을 이루는 ‘사마타’의 관계정립에 대한 이견(異見)이 본질을 이루는,⁴⁵⁾ 조준호와 임승택과 김재성 사이에 ‘사띠(sati) 논쟁’이 발발(勃發)한다.⁴⁶⁾

먼저 조준호는 사마타(4정려)를 먼저 수행하고 그 최고단계인 제4정려에서 사띠(수동적 주의집중)의 발현과 완성 후에 위빠사나(4념처)를 수행하는 ‘지(止)→관(觀)’의 차제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임승택은 사마타(4정려와 4무색정)와 위빠사나(18가지 따라가며 보는 법)가 선정의 예비 단계 혹은 선정의 상태에서 가능한 ‘지↔관’의 동시성을 주장하며, 제1정려부터 무소유처정까지 위빠사나가 가능하지만, 언어적 현상이 나타나는 제1정려야말로 위빠사나가 가장 온전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재성은 선정수행 없이 바로 대상을 관찰하는 마하시 계통의 위빠사나가 정통적이며 권위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하여 빨리 주석

42) 사사키 시즈카 2004; 이러한 사사키 시즈카 설에 대한 반론에 관해서는 이자랑(2008, 118-121) 참조.

43) Skilling 2012, xxii-xxix.

44) Perreira 2012, 452.

45) ‘위빠사나와 사마타의 관계정립이 이 논쟁의 주요 쟁점이고 ‘사띠’의 한국어 번역은 이에 부수하는 문제라는 점에 관해서는 김준호 2008b, 193 참조.

46) 김준호(2008b, 191)는 논쟁의 순서대로 8편의 논문, ① 조준호 2000, ② 임승택 2001a, ③④ 조준호 2001, 조준호 2002, ⑤ 임승택 2001b, ⑥ 김재성 2002, ⑦⑧ 임승택 2002, 임승택 2003을 들고 있다.

서라는 안경을 빌려 니까야를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아라한에 이르는 길 중 지혜에 의한 해탈자[慧解脫者]는 사마타 없이 위빠사나만을 닦는 자[乾觀行者]이며, 이들은 『위스디막가』 등의 주석서에서 증명된 ‘찰나삼매’에 기반하여 위빠사나를 행하는 것으로, 마하시 계열의 위빠사나는 이러한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방법론은 셋 모두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빨리 니까야의 특정 경전과 문구를 선택하여 경증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인용한 경문을 빨리 주석서가 니까야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전제아래 주석서를 통하여 해석하거나(김재성), 산스크리트·한문·티베트어 등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대응하는 문헌을 참조하지 않거나(임승택), 한역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배대하여 빨리본의 보조로 삼는 방법(조준호)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의 초기불교관은 임승택의 경우 니까야 만을 경증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김재성은 미얀마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마하시 계열의 위빠사나가 니까야와 빨리 주석서의 전통과 권위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조준호는 그의 이해에 따르면 ‘위빠사나’인 사념처를 열반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길’로 해석하고⁴⁷⁾ 역사적 붓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직접 실천한 ‘완전한 수행법’으로 믿는⁴⁸⁾ 점에서 2000년대 당시에 만연했던 빨리 니까야(문헌)/남방상좌부 ‘지상주의’(至上主義)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8년 조준호는 이 논쟁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성과와 과오에 관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서술한 리뷰를 출판하였다. 조준호는 사띠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의 문제점을⁴⁹⁾ ①[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임의적인] 텍스트 [선정]과 [빨리 니까야와 한역 아함경을 비교분석하는 치밀한 문헌학적] 연구방법[의 결여], ②[‘위빠사나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47) 조준호 2000, 323.

48) 조준호 2001, 81-82.

49) 조준호는 사띠 논쟁의 성과를 원전에 토대한 본격적인 초기불교 연구의 장을 열 것을 비롯하여 넷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조준호 2008b, 194-196; 이하는 앞의 논문, 196-206을 필자의 이해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고 붓다가 직접 수행한 유일한 수행법'이라는 전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결여된.] 철학정신의 부재와 [남방상좌부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맹목적] 수입학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김준호는 빨리 경전의 내용이-나아가 일부 연구자의 경우 『위숫디막가』나 니까야의 주석서도- 모두 불설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 혹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태도에 대하여 비판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초기불교 텍스트는 부파불교의 산물로서 각 부파의 불교해석이라는 프리즘을 거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초기불교의 텍스트 속에서 부처의 말이 온전하게 그대로 살아 있다고 믿을 수 없는 것”⁵⁰⁾이라고 자신의 문헌관 역시 피력하고 있다.

김준호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아함과 니까야를 대조 분석한다는 점에서 앞서 슈미트하우젠이 분류한 ‘고등비평’을 사용하는 세 번째 부류와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의 방법론을 따르지는 않는다. 김준호는 니까야와 한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❶배경 등이 다르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❷설법의 취지와 경문의 전체 대의가 일치하는 가를 살펴 한쪽에만 있는 내용은 보완된 해석으로 간주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❸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 없는 내용의 경우 교설의 해석 차이로 간주하여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삼단계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⁵¹⁾

2000년대에 불교계와 학계에 만연한 빨리 니까야/남방상좌부 ‘지상주의’(至上主義)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은 김준호 만은 아니다.

이자랑은 2001년 일본학계의 연구사 동향을 정리한 논문과 2007년 사사키 시즈카의 ‘과승 정의의 전환’과 관련된 책에 대한 리뷰를 통해⁵²⁾ “부파불교와 대승불교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양자 모두 출가 교단에서 발생한 다른 형태의 불교”라는 일본의 최신 연구 성과를 전함과 동시에, 교단사/부파불교 연

50) 앞의 논문, 198.

51) 김준호 2008a, 15-16.

52) 각각 이자랑 2002와 이자랑 2008.

구에 있어서 ‘율’(vinaya)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강성용은 2004년 ‘빨리’가 『마하방사』(Mahāvamsa)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붓다가 사용한 언어인 ‘마가다의 언어’(Māgadhī)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⁵³⁾ 그에 따르면, 빨리는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말해지고 쓰여 졌던 살아있는 자연언어가 아니다. 빨리는 서북부 인도중세어에 뿌리를 두고 다면적인 발전을 안고 있는, 특정한 문헌들에 연관되어서 사용되었던 문어(literary language)이다.⁵⁴⁾ 또한 강성용은 빨리 만을 배워 빨리 문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산스크리트를 배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⁵⁵⁾ 빨리 문헌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빨리라는 언어 자체의 자연언어적이고 인공언어적인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⁵⁶⁾이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⁵⁷⁾고 역설하고 있다.

2.2 대승/아함 비불설 논쟁

몇몇 학자들의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위빠사나·니까야·상좌부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앞세운 흐름은 ‘사피 논쟁’ 이후 그 전성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2009년에 ‘권오민’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 첫 번째로 좌절하게 된다.

2009년 권오민은 ‘불설’에 관한 치밀한 연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후지타 요시미치가 11년 전 도달한 것과 대동소이한 결론에 도달하였다.⁵⁸⁾ 그에 따르면, 불설/비불설 논쟁은 부파불교를 비롯한 불교일반의 논쟁점으로, 설일체유부가 중심이 되어 법과 율 이외에 추가한 ‘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이다’

53) 강성용 2004; 또한 김경래 2012a, 89-98 참조.

54) 강성용 2004, 176.

55) 앞의 책, 176-178.

56) 강성용 2019는 이러한 인식의 전형(典型)이 되는 논문이다.

57) 강성용 2004, 179.

58) 권오민 2009;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권오민은 류현정이 후지타 요시미치(2019)를 출판하기 전까지 그 존재를 몰랐음을 알 수 있었다.

라는 새로운 기준은 아비달마의 찬술 뿐 아니라 대승에도 받아들여져 대승경전 제작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또한 그는 “부파불교 시대 근본결집을 비롯한 다수의 불설경이 산실되었으며 각 부파에서는 자신들이 채택하여 송지(誦持)한 경과 새로이 개변 찬술한 경을 전체적으로 결집(總集)하였다. ...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오늘날 전해지는 아함(법장부와 유부 전승)과 니까야(상좌부 전승)를 불타의 친설로 보기 어렵다”는 그의 초기불교 문헌관을 밝힌다.⁵⁹⁾

이 논문의 사족(蛇足) 중 “대승경이 비불설이라면 오늘 우리가 접하는 아함 또한 비불설이다”⁶⁰⁾라는 한 구절로 인해 ‘대승/아함 비불설 논쟁’이 촉발되고, 한국에서 초기불교 연구의 전환점이 된다. 이 논쟁은 범보신문에서 2009년 8월 10일에서 2009년 9월 25일까지 마성스님과 권오민의 2차례에 걸친 대론, 전재성과 권오민, 황순일과 권오민의 순으로 이어진다.⁶¹⁾ 앞서 권오민의 불설에 대한 이해와 초기불교 문헌관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의 대론자인 마성스님, 전재성, 황순일의 불교관을 살펴보자.

마성스님은 2009년 8월 10일의 첫 번째 기사에서 아함이 니까야의 초기경전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개변 증광된 것이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역사적인 붓다의 친설(親說)을 담고 있는 반면, 대승경전은 후대의 대승교도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재해석하여 불설(佛說)로 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해에는

59) 앞의 책, 145-146.

60) 앞의 책, 148.

61) 기사 제목의 순서대로 <마성스님, “붓다 친설 담긴 아함과 대승경전은 판판”>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98>; 검색일자: 2020.11.03.)-<권오민 교수, “아함도 부파가 승인한 불설일 뿐”>(<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84>; 검색일자: 2020.11.03.)-<마성스님, 니까야 부정은 곧 불교사 풀이해>(<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68>; 검색일자: 2020.11.03.)-<권오민 교수, “니까야만 불설 주장은 맹목일 뿐”>(<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43>; 검색일자: 2020.11.03.)-<전재성 회장, “니까야는 창작아닌 ‘리얼리티’ 자료”>(<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61>; 검색일자: 2020.11.03.) -<권오민 교수, “역사성 운운은 사실성 무시한 태도”>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1>; 검색일자: 2020.11.03.)-<황순일 교수, 니까야 체계적 전승... ‘친설’ 담겼다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932>; 2020.11.03. 검색>-<권오민 교수, ‘하나만 진실’은 다양성 시대에 역행>(<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33>; 검색일자: 2020.11.03.)이다. 이하의 인용표시(“”)는 각각 이 신문 기사들에서 인용한 것이다.

‘친설=불설’이라는 등식이 깔려있다. 또한 그는 현재의 스리랑카 등의 불교전통을 분별설부(Vibhajavādin)=상좌부(Theravāda)와 동일시함을 통해 이 전통만이 결집을 통해 정법을 유지 전승한 ‘진짜’로 보고, 설일체유부 등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가짜’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이해는 스리랑카 등의 ‘남방상좌부 불교=순수한 초기불교’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⁶²⁾

권오민에 대한 재반론(2009.08.21)에서 마성 스님의 앞선 입장은 더욱 강화된다. 그는 스리랑카 등의 불교교단인 ‘남방상좌부’를 제1결집을 주도했던 장로들로부터 비롯되어 2,500년 동안 단절 없이 전통을 계승해온, 파승으로 떨어져나간 부파와는 차원이 다른 원조(元祖)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이 전승해온 ‘니까야’는 상좌부로부터 떨어져나간 유부를 비롯한 부파가 전승해온 ‘아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여긴다. 그의 불교관은 “비유하면 현재의 조계종은 상좌부에, 군소종단은 부파교단, 전통과는 계통이 다른 원불교는 대승교단(보살가나)에 해당될 것이다”에 잘 드러나 있다.⁶³⁾

전재성은 2009년 9월 4일 기사에서 초기불교 경전인 아함과 니까야는 역사적 붓다의 친설이 담긴 고층(古層)의 경전이고, 대승경전은 역사적 붓다의 친설과 깨달은 붓다들의 가르침을 담은 신층(新層)의 경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빨리 니까야를 아함보다 오래되고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①아쇼카왕이 당시의 잘못된 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목갈리뿔다 텃사로 하여금 결집하도록 한 결과가 니까야라고 보는 점, ②니까야라는 기준에 2/3가 일치하기 때문에 아함이 고층에 속한다고 보는 점, ③니까야의 운문경전은 그 언어가 베다어까지 소급되는 가장 오래된 층에 속한다고 보는 점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⁶⁴⁾

62) 이에 대해 권오민은 ‘친설≠불설’을 지적하고, 제1결집 자체에 대한 의문과 그 당시 송출된 경전의 산실되었다는 기록, 이후 문자로 작성되기 까지 300년간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없음의 이유를 들어 ‘순수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63) 권오민은 이에 대하여 “상좌불교의 전도용 팜플렛에나 나옴직”한 말이며, 사사키 시즈카의 ‘파승정의 전환’ 등을 제시하여 마성 스님이 낡은 학설에 기대고 있으며, 남방 상좌부의 주장을 맹신하는 ‘새로운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64) 권오민은 이에 대하여 ‘니까야는 상좌부에서 편찬 전승한 경전’이라는 말 한마디를 소화할 수 없

마지막으로는 전재성에 대한 비판에서 권오민이 ‘친설≠불설’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빌린 황순일이 대론자로 나선다. 황순일은 ①니까야가 17-18세기에 필사된, 더욱이 12세기에 미얀마 문법학자들에 의해 음운체계가 변형된 사본을 저본으로 한다는 점, ②빨리는 마가다(Magadha)가 있었던 동부 지방의 방언이 아니라 서부지방의 방언과 더 유사하기에 붓다가 사용했으리라 생각되는 마가다어(Māgadhi)가 아니라는 점, ③프라크리트에서 번역된 한역 아함은 예를 들면 산스크리트 『장아함경』과 비교했을 때 불완전한 면을 보여준다는 점의 이유를 들며 “빨리 니까야도 한역 아함경도 현재의 형태로서는 역사적으로 실재했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는 문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초기불교 문헌관은 빨리 니까야 혹은 초기경전 중심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마성 스님이나 전재성과는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그는 경전 제작으로부터 출발하여 필사자의 오기(誤記)와 의도적인 가감이 개입할 수 있는 ‘필사’의 전승방식을 택한 문자전통의 대승경전과 합송이라는 변형을 상당부분 제한할 수 있는 구전전통을 택한 초기경전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⁶⁵⁾

초기불교학자들과 권오민의 경전관과 불교관이 날카롭게 대립한 이러한 논쟁의 결과에 대해서 참여자인 황순일은 2015년에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벌어진 불설·비불설 논쟁은 한국적인 형태로 테라와다 불교의 빠알리 삼장이 가지는 권위가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초기불교 학자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남방 테라와다

는 한국 초기불교학계의 경직성에 한탄하며, 거듭 ‘친설=불설’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초기불교 연구자들의 태도를 비판한다. 또한 역사적 증언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있는 『디빠방사』, 나아가 『이부중론』 등 한쪽의 전승된 역사서를 기반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65) 이에 대해 권오민은 ‘친설=불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부파불교의 연장선상에서 대승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때 대승경전과 기존 부파불교는 무관하지 않으며, 현존하는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모두 편찬시기(기원전 1세기~기원후 5세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불교의 빠알리 삼장이 다른 경전들에 비해서 더 높은 권위와 정통성을 가진다는 결정적인 논거는 도출되지 못했다…단계적인 가감과 변형 그리고 일정한 단절을 겪었던 빠알리 경전에서 붓다의 직접적인 가르침인 친설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성이 이 논쟁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초기불교 시원론 논쟁의 진정한 의의는 마하 위하라로 알려진 스리랑카의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1,500년에 걸친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치밀하게 만들어온 빠알리 삼장의 권위와 정통성이란 체면으로부터 한국불교가 깨어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⁶⁾

황순일의 평가와 같이 스리랑카 등의 불교전통의 종교적 순수성을 뒷받침 해주던 세 축인 위빠사나, 빨리 니까야, 상좌부 중 니까야의 권위가 먼저 이 논쟁을 통해서 해체되기 시작한다.

다른 한 축인 ‘위빠사나’는 2011년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을 통해 그 권위가 해체되기 시작한다. 먼저 황순일은 붓다가 깨달은 수행법으로 알려진 위빠사나가 실상은 미얀마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 새롭게 발전한 수행전통임을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하시 계열의 위빠사나가 활성화하게 된 배경에 “나와 주변과 세계가 무상하며 공하고 자아가 아니란 것(無我)을 끊임없이 알아차릴 것을 강조”하여 “국민이 세속적 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해지도록 유도”한 군부의 우매화 정책이 있었다고 밝혔다.⁶⁷⁾

동일한 해에 이영진은 위빠사나(실제는 **사념처!**)에 부여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타이틀을 떼어버리는 논문을 발표한다.⁶⁸⁾ 그는 ‘유일한 길’로 이해되는 ‘ekāyano mārgaḥ’의 용례를 논리적 분석과 비유로 나누어, 불교의 다양한 경전과 논서 그리고 불교 이외의 인도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래 ‘홀로 가는 길’의 의미인 ‘ekāyano mārgaḥ’는 사념처의 맥락에서 열반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되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

66) 황순일 2015.

67) 황순일 2011.

68) 이영진 2011.

미에서 ‘한 갈래 길’ 또는 37보리분법 혹은 위빠사나와 사마타가 ‘하나로 결합하는 길’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마지막 한 축인 ‘상좌부’의 권위 또한 해체되기 시작한다. 김경래는 2012년 박사논문에서 그리고 후속하는 논문들에서⁶⁹⁾ 마하위하라(Mahāvihāra)가 5세기에 ‘붓다교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기존 전승문헌들을 그들의 관점에 부합되도록 재편집함을 통해, 그리고 붓다의 언어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마가다어를 자신들의 언어이자 혼합방언인 빠리어(pālibhāsa)와 동일시함을 통해, 아비담마(abhidhamma)를 ‘최상의 가르침’으로 해석하여 ‘아비담마질론’과 동일시하고, 이들이 붓다의 친설이라는 내러티브를 부가함을 통해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⁷⁰⁾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0년대 초반 한국의 불교학계는 스리랑카 등의 특정 불교전통이 권위로 내세우는 니까야·위빠사나·상좌부에 대한 순진한 믿음에 기반한 갈라파고스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

III. 나가며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에서 일어난 초기불교연구의 주요 사건을 시대적으로 정리하는 ‘연대표’를 염두에 두고 기술함으로써, 특정한 전통이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 고찰 없이 진행되었던 국내 초기불교 연구가 세계학계의 담론과 흐름으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었던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소수의 학자들이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세계학계의 담론에 근거를 두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는지를 다루었다.

69) 순서대로 김경래 2012a, 2012b, 2013, 2015.

70) 그는 박사학위 논문 말미에(김경래 2012a, 214-215) 테라와다를 ‘초기불교’ 혹은 ‘불설’(→친설?)로 평가하는 테라와다 맹신자들이 ①삼장을 근거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경우, ② 빠리를 근거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경우, ③ 역사적 전승(Vamsa)를 근거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경우, 이 세 명제 모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 세 가지 답은 ‘대승/아함비불설 논쟁’에 참여했던 초기불교 연구자들에 대한 그 자신의 답변으로 보인다.

인간과 인간의 네트워크를 넘어선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 진입하고, 더욱이 ‘코로나 팬더믹’아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전 세계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회와 세미나가 빈번해진 현 시점에서,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명명된 한국학계의 폐쇄적인 현상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갈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빠리와 한문 이외에도 간다리, 산스크리트, 티베트어로 이루어진 자료가 추가됨에 따라서 연구자로서 다루어야 할 언어의 숫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빠알리經을 우위에 두고 그것에 맞추어 다른 원시경전(산스크리트 및 漢譯本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각이 지양되어, 서로 대등한 가치기준에서 각 학파에 속한 텍스트”⁷¹⁾를 연구하자는 범경 스님의 제언이 30년 후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경전에서 붓다의 친설(親說)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며, 초기경전은 각 부파마다 ‘붓다 가르침의 본질[法性]에 어긋나지 않게 잘 말해진 것이 불설이다’라는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편찬(編纂)된 것”이라는 ‘대승/아함 비불설 논쟁’의 결론이 수용된다면, 더불어 부파와 대승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 결과이며 대승은 부파보다는 ‘학파’ 개념으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유력한 가설에 기반 한다면, 초기불교 문헌의 범주는 니까야가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된, 4-5세기경 붓다고사가 활동했던 시기까지의 대승불교와 주류불교의 경론(經論)으로 넓혀질 것이다. 이는 ‘초기불교→아비달마/부파불교→대승불교→밀교’라는 임의적인 도식화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혹은 기대를 낮추어 현실적으로 보자면, 빠리 문헌만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를 초기불교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과일반화의 오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

71) 서성원 1989, 42-43.

일까?

우선 학계에서는 연구자의 불교[문헌]관이 재현되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실질적인(!)**⁷²⁾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계에서는 학문후속세대에 불교학 연구방법의 역사와 전개, 그 적용의 실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방법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선행연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교학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의 습득이다. ‘사띠 논쟁’이나 ‘대승/아함 비불설 논쟁’이 한국의 불교학 연구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자의 경우 슈미트하우젠(Schmithausen 1981)이나 후자의 경우 후지타 요시미치(2019), 그리고 2008년 세계불교학회(IABS)에서 발표된 ‘테라와다’의 연구 동향을 알고 있었다면, 이 논쟁들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있었다더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창조적인 연구방법론과 그 적용, 철저한 선행연구 조사, 최신정보의 습득은 서로 결합하여 우리학계와 구성원을 세계학회의 담론에 참여하거나 혹은 담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72) 이는 이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장이 단순히 서구나 일본의 방법론을 소개하거나, 혹은 서구나 일본학계에 대한 감정적인 반감에서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만의 방법론’을 외치는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곳에서는 실제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헌을 분석했는가에 관한 실제적 용례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 우리만의 좀 더 정확하게는 창의적인 방법론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가끔 동일한 텍스트 혹은 동일한 구문이 각자 적용한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논의의 장을 상상하고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REFERENCES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 BRAAVIG, Jens and LILAND, Fredrik. 2010. *Traces of Gandhāran Buddhism: An Exhibition of Ancient Buddhist Manuscripts in the Schøyen Collection*, Oslo: Hermes Publishing.
- CHO, Joon ho (조준호). 2000. 「초기불교에 있어 止·觀의 문제」 [“Problem of *Samatha* and *Vipassanā* in Early Buddhism”], 『禪學』 (*Journal of Seon Studies*), vol. 1, 321-343.
- _____. 2001. 「Vipassanā의 인식론적 근거-빠알리(Pāli) 경전을 중심으로」 [“The Epistemological Base of *Vipassanā* Practice: Based on Early Pāli texts”], 『보조 사상』 (*Bojo Sasang*), vol. 16, 41-88.
- _____. 2002. 「초기불교경전에 나타난 수행에 관한 용어와 개념의 검토(1) - 지(止), 관(觀)을 중심으로」 [“A Critique of the Technical Terms and Concept of Meditative Practice: On *Samatha* and *Vipassanā*”], 『禪學』 (*Journal of Seon Studies*), vol. 3, 103-143.
- CHOI, Jin kyoung. 2012. “The *Tridaṇḍi-sūtra* and the two *Lohitya-sūtras* in the Gilgit Dīrghāgama manuscript,”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vol. 11, 9-36.
- FUJITA, Yoshimichi (후지타 요시미치), RYOO, Hyunjung tr. (류현정 역). 2019. 「불어(仏語)의 정의를 둘러싼 고찰」 [“Korean translation of 「仏語の定義をめぐる考察」 [“On a definition of the Word of the Buddha”]”],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vol. 16, 209-267.
- HWANG, Soonil (황순일). 2011. 「위빠사나는 초기불교 수행법인가?」 [“Was the *Vipassanā* an early Buddhist meditation practice?”], 『불교평론』 (*The Buddhist Riview*), vol. 46.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
- _____. 2014. 「한국 불교학 40년 연구성과와 과제: 초기불교」 [“The 40 years of Buddhist Studies in Korea: Early Buddhism, Its Achievement and Challenge”], 『한국불교학』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 68,

- 13-35.
- _____. 2015. 「초기불교 시원론 논쟁」 [*“Debate on the originality of the early Buddhism”], 『불교평론』 (*The Buddhist Riview*), vol. 62.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9>.
- KANG, Sung Yong (강성용). 2004. 「뭐, 팔리를 배운다고? 그게되나?—팔리(Pāli)란 무엇이며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What, learning Pāli? Is that possible? What is Pāli and How to learn”], 『철학과 현실』 (*Chealhak Gua Hyönsil*), vol. 62, 166-180.
- _____. 2019. 「‘고귀한(이의) 네 진리’를 담은 표현의 문법적 문제와 초기불교의 이해에 대하여」 [“The Four *Ariya-saccas* in *Dhammacakkappavattana* Reconsidered”],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59, 1-25.
- KIM, Jaesung (김재성). 2002. 「순관(純觀, suddha-vipassanā)에 대하여—남방상좌불교 수행론의 일고찰—」 [“On the suddha-vipassanā: A Study of the Theravāda Meditation theory”],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4, 255-282.
- KIM, Jun-ho (김준호). 2008a. 「초기불교 禪定說의 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of meditation theory in the Early Buddhism”], *diss.* Pus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08b. 「사미(Sati) 논쟁’의 공과(功過)」 [*“Merits and Demerits of the debate on *Sati*”],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vol. 4, 187-206.
- KIM, Kyungrae (김경래). 2012a. 「스리랑카 테라와다의 정통성 확립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Vamsa*(年代記)와 *Atthasālinī*(殊勝義註)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ravāda Orthodoxy and Authenticity—With Reference to the *Vamsa* and *Atthasālinī*—”], *diss.* Dongguk University.
- _____. 2012b. 「붓다고사의 행적에 대한 연대기의 서술과 의도—*Mahāvamsa* 37장 215-246송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fe of Buddhaghosa Described in the *Mahāvamsa*”], 『한국불교학』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 63, 415-441.
- _____. 2013. 「랑카섬(*Laṅkā*)의 종교 정체성과 아비담마 전통—복합어 ‘*abhi-dhamma*’의 해석과 의도를 중심으로—」 [“The definition of the compound ‘*abhi-dhamma*’ of the definition of the compound ‘*abhi-dhamma*’”]

- and Mahāvihāra's Legitimation”], 『한국불교학』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 66, 223-248.
- _____. 2015. 「후기 빠알리 내러티브에 나타난 종교적 의도와 함축적 의미—테라와다 아비담마의 기원을 중심으로—」 [“The Origin of Abhidhamma and Its Hermeneutics in the Pāli Narratives”], 『한국불교학』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 73, 229-253.
- KO, Ik-jin (고익진). 2018. 『아함법상의 체계연구』 [“*Research on the system of Fāxiāng in Āgamas*], Gwangju: 담마아카데미 (Dhamma-Akademi).
- KWON, Oh Min (권오민). 2009. 「佛說과 非佛說」 [“*Buddhavacana and Non-Buddhavacana*”], 『문학사학철학』 (*The literature, History & Philosophy*), vol. 17, 86-153.
- LEE, Ja-Rang (이자랑). 2002. 「인도불교 교단사에 관한 일본 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대승불교의 기원을 중심으로—」 [“Recent Trends of the Japanese Academic Circle on the historical study of the order of Indian Buddhism”], 『불교학보』 (*Bulgyohakbo*) vol. 39, 311-324.
- _____. 2008. 「佐々木閑, 『インド仏教変移論 / なぜ仏教は多様化したのか』」 (”*Book Review: Shizuka Sasaki's On the Transformation of Indian Buddhism: Why Did Buddhism Become Pluralistic?*”),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vol. 3, 107-122.
- LEE, Jae-hyeong (이재형). 2011. 「초기불교 연구 현황과 전망—불교 박사학위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State of the Art and Outlook on the research of the Early Buddhism, focusing on analysis of dissertations on Buddhism*”], 『불교평론』 (*The Buddhist Riview*), vol. 47.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4>.
- LEE, Joongpyo (이중표). 2014. 「고익진의 초기불교 해석」 [“Ikjin Ko's Interpretation of the Early Buddhism”], 『한국불교학』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vol. 69, 35-69.
- _____. 2018. 『붓다의 철학: 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Buddha's Philosophy*], Seoul: 불광출판사 (Bulkwang Publishing).
- LEE, Youngjin (이영진). 2005. 「초기불교 텍스트에서 나타난 상수멸(saṅghāvedayitanirodha)의 불일치와 모순」 [“Divergencies and Inconsistencies of the *Saṅghāvedayitanirodha* in early Buddhist texts”], 『인도철학』 (*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 vol. 19, 91-121.
- _____. 2011. 「*ekāyano mārgaḥ* (一趣道)의 해석에 관하여 —분석과 비유를 중심으로—」
 [“On the interpretation of *ekāyano mārgaḥ* —focusing on analyses and similes”],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vol. 9, 143-185.
- _____. 2014. 「최근의 불교학 연구동향으로 본 인도 필사본 연구의 중요성」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Indic Manuscripts in the field of Buddhist Studies”], 『
 인도철학』 (*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42, 319-356.
- LIM, Seung-Taek (임승택). 2001a. 「초기불교의 경전에 나타난 사마타 [위]빠사나
 [“*Samatha* and *Vipassanā* in the Early Buddhist Sutras”], 『인도철학』 (*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11, 205-234.
- _____. 2001b. 「사띠(*sati*)의 의미와 쓰임에 관한 고찰」 [“On the meaning of *Sati*”], 『보조
 사상』 (*Bojo Sasang*), vol. 16, 9-39.
- _____. 2002. 「선정(*jhāna*)의 문제에 관한 고찰—*Nikāya*에 나타나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Jhānas*”],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5, 247-277.
- _____. 2003. 「첫 번째 선정(初禪)의 의의와 위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first *jhāna*”],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6,
 185-212.
- PARK, Daeyong (박대용). 2017. 「한국 초기불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전망—1980년대 이
 후,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The Current Situation and Task, Prospect on
 Early Buddhist Studies in Korea - focusing on the field of study since the
 1980's-”], 『문학사학』 (*The literature, History & Philosophy*), vol 48,
 23-82.
- PERREIRA, Todd LeRoy. 2012. “Whence Theravāda? The Modern Genealogy of an Ancient
 Term,” in *How Theravāda Is Theravāda? Exploring Buddhist Identities*, Peter
 Skilling, Jason A. Carbine, Claudio Cicuzza, and Santi Pakdeekham, eds., Chiang
 Mai: Silkworm Books, 443-571.
- SCHMITHAUSEN Lambert. 1981. “On some aspects of descriptions of theories of “liberating
 insight” and “enlightenment” in early Buddhism,” in *Studien zum Jainismus und
 Buddhismus: Gedenkschrift für Ludwig Alsdorf*, Klaus Bruhn and Albrecht

- Wezler eds., Wiesbaden: Franz Steiner, 199-250.
- _____. 1990. “Preface,” in *Earliest Buddhism and Madhyamaka*, RUEGG, David Seyfort Ruegg and Lambert Schmithausen eds., Leiden: Brill, 1-4.
- SEO, Seong-won (서성원). 1989. 『『魔女經』과 Sattavassāni-Dhītarō에 관하여』 [*“On the *Mónū-jīng* and *Sattavassāni-Dhītarō*”], 『인도철학』 (*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1, 39-59.
- YUN, Byeong-sik (윤병식). 1989. 『『那先比丘經』研究[I]』 (*“A Study on the *Nāgasena Bhikṣu Sūtra* [First part]”), 『인도철학』 (*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1, 83-94.
- SASAKI, Shizuka (사사키 시즈카), Ven. Jong Muk tr. (종묵스님 역). 2004. 「대승불교 기원론의 전망」 [*“Prospects of Origins of the Mahāyāna Buddhism”], 『불교평론』 (*The Buddhist Riview*), vol. 60.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3>.
- SASAKI, Shizuka (사사키 시즈카), LEE, Ja Rang tr. (이자랑 역). 2007. 『인도불교의 변천』 (*“Korean translation of 『インド仏教変移論 / なぜ仏教は多様化したのか』 (*On the Transformation of Indian Buddhism: Why Did Buddhism Become Pluralistic?*)”), Seoul: 동국대학교 출판부 (Dongguk University Press).
- SCHLOSSER, Andrea. 2013. “On the Bodhisattva Path in Gandhāra Edition of Fragment 4 and 11 from the Bajaur Collection of *Kharoṣṭhī* Manuscripts,” *diss.* Freien Universität Berlin.
- SKILLING, Peter. 1994. *Mahāsūtras: Great Discourses of the Buddha Vol. I: Texts*,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 _____. 2012. “Introduction,” in *How Theravāda Is Theravāda? Exploring Buddhist Identities*, Peter Skilling, Jason A. Carbine, Claudio Cicuzza, and Santi Pakdeekham, eds., Chiang Mai: Silkworm Books, xiii-xxxii.

Reconstruction of Early Buddhism studies in Modern Korea: A struggle with Galapagos Syndrome

Lee, Youngjin

Researcher

Institute of East-West Thought, Kyungpook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a brief history of Early Buddhism studies conducted by Korean scholars since the 1970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se studies, especially since the 1990s, can be named "Galapagos Syndrome" in that they have developed in their own form and have been isolated from the world academic community by failing to review or consult previous studies on the same subjects done by scholars abroad, as well as by not applying proper research methodologies. It is believed that a naive belief in the claims of a particular tradition underlies this phenomenon: the assertions that *Pāli* is the *Māgādhī*, allegedly the mother tongue of the Buddha, *Pāli Nikāyas* retain the exact words of the Buddha without distortion, and insight meditation (*vipassanā*) being currently practiced in Southeast Asia is the only way to attain Nirvana, to mention a few. On the opposite side of this trend, a few Korean scholars who are familiar with the latest research information in this field have struggled against this naive belief or one-sided opinions.

Based on these two trends, this paper intends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Early Buddhism studies in modern Korea on two axes: the so-called "Galapagos Syndrome" and a struggle to cope with this syndrome. It is done by comparing the most significant events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such as the debate on the authenticity of scriptures of Mahāyāna and the Early Buddhism, with contemporary

currents of the world academic community, considering a chronological table.

Keywords

Early Buddhism, Galapagos Syndrome, Debate on *Sati*, Authenticity of Buddhist scriptures, Pāli texts, *Vipassanā*, Theravāda

2021년 02월 04일 투고

2021년 03월 13일 심사완료

2021년 03월 18일 게재확정

